

경제학부 석학 방문 교수로 마크 빌즈(Mark Bils) 임용



마크 빌즈(Mark Bils) 교수

서울대학교의 노벨상급 석학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거시경제학 분야의 석학인 마크 빌즈(Mark Bils) 교수가 석학방문교수(SNU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로서 한 학기동안 경제학부에 임용되었다. 현재 마크 빌즈(Mark Bils) 교수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로체스터 대학은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와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도나 스트릭랜드(Donna Strickland)를 배출한 연구중심 대학이다.

이번 임용은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 석좌교수가 마크 빌즈 교수를 서울대학교에 적극 추천하여 이루어졌다. 사전트 교수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 하반기에 경제학부에 임용된 바 있다. 빌즈 교수는 연구의 탁월성과 겸손한 인품으로 동료 경제학자들 (특히 소장파 학자)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학자 중 한 명이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빌즈 교수만의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

빌즈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과 노동경제학이며, 이 외에도 경기 변동론과 경제성장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Real Wages Over the Business Cycle: Evidence From Panel Data"(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5)와 "The Cyclical Behavior of Marginal Cost and Price"(American Economic Review, 1987)는 최근 연구 방향인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거시경제학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선도한 논문이다.

또한 논문 "Some Evidence on the Importance of Price Stickiness"(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04)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케인즈 이래로 거시경제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가격 경직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했다. 에미 나가무라(Emi Nakamura, UC Berkley)가 위 논문을 확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 John Bates Clark Medal을 수상한 것은 빌즈 교수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John Bates Clark Medal은 미국 경제학회에서 매년 연구업적이 뛰어난 40세 이하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고, 수상자의 약 절반이 이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마크 빌즈 교수는 여러 한국인 학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경제학 분야 최우수 학술지에 논문 6편을 출간하였고, 지난 30여 년간 시카고 경영대학 및 로체스터 대학에 재직하면서 10여명의 한국인 경제학박사를 배출했다. 아울러, 장용성(서울대), 김선빈(연세대) 교수와 진행 중인 연구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보인 반면 영국은 왜 예외였는지를 다루는 기사에서 소개되었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네 차례나 방문한 적 있는 마크 빌즈 교수는 지한파 경제학자로서, 서울대학교와 한국에 대한 애정에 비추어 볼 때, 연구나 교육을 통한 기여 가능성은 여느 노벨상 수상자 못지않다. 이번 방문 기간(20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동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Macro Labor"를 주제로 한 특강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평소 접할 수 없는 석학 교수의 특강을 듣기 위하여 학부 교수뿐만 아니라 타대학에서도 다수의 교수, 학생들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빌즈 교수는 학생들과 경제학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간담회(1월 17일)를 가졌다. 이외 거시경제학의 최근 연구를 주제로 한 SNU 워크숍(1월 10일)과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1월 16일)를 통해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진지한 학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마크 빌즈 교수의 "Macro Labor" 특강 모습)

크로바상사 이강홍 회장 발전기금 10억 원 쾌척



(왼쪽부터 오세정 총장, 이강홍 회장)

크로바상사 이강홍(경제 60) 회장이 경제학부에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쾌척했다. 이에 서울대는 2019년 12월 19일(목)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이강홍 회장, 이봉주 사회과학대학 학장, 김대일 경제학부장 등 주요 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1966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강홍 회장은 전 세계 유명브랜드인 썬소나이트 가방 기업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경제 산업 발전에 헌신해왔다.

이강홍 회장은 “사업자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한 뒤 “국가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교육에 이익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선배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기부의 취지를 밝혔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는 매 학기 김태성 세미나, BK21 세미나, SURE(SNU Research in Economics) 세미나, H-Trio(Health, History, and Human Capital) 세미나, CDJ(분배정의연구센터) 세미나, CEBSS(실

험행동사회과학센터)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세미나에 대한 정보는 경제학부 홈페이지(<http://econ.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면에서는 여러 세미나 중 일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Korea Workshop: Experimental Economics and Development Economics

2019년 11월 8일에 ‘실험 및 개발경제학 워크숍’이 BK21Plus, 경제학부, 창의선도신진연구자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하에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실험 및 개발경제학자를 초청하여 각자 진행하고 있는 최근 연구를 발표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Game Theory, Environment, Gender Gap,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실험 연구들이 소개되었으며, 발표자들은 실험 설계 과정과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참석자 모두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각 대학의 교수진들 외에 대학원생 연구자를 위한 Student Session도 진행되었다.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참석한 교수진들은 발표된 내용에 관해 질문과 함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들을 하였다.

이번 ‘실험 및 개발 경제학 워크숍’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실험 및 개발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첫 행사로 해당 분야의 국내 학자들 간 교류를 통해 최신 연구를 공유하고 더 나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 점검’ 심포지엄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2019년 11월 1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경제연구원 10주년 정책 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 점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원혁 교수(KDI 정책대학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 평가: 구조개혁과 거시정책의 부조화’를, 박상인 교수(서울대)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김인준 명예교수(서울대), 김소영 교수(서울대), 이종화 교수(고려대), 주병기 교수(서울대), 주상영 교수(건국대)가 참여했다.

교수수상 및 동정

이근 교수, 제15회 경암상 수상



이근 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19년 11월 1일에 경암상 인문·사회 분야를 수상했다. 이근 교수는 후발국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한 '경로개척 및 창출형' 발전 전략이 필요함을 보였다. 이러한 업적으로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독일 '국제슈페터학회'로부터 슈페터상을 받은 바 있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송금조 태양그룹 회장이 1,0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공익재단으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고,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학자들에게 2004년부터 매년 경암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이근 교수, KAPP Prize 수상



이근 교수가 작년 9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31회 유럽진화경제학회(EAEP) 총회에서 KAPP Prize를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1년간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최우수 논문을 뽑아 시상하는 것으로,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에 실린 이근 교수(이종호 박사 공저)의 논문 "National Innovation Systems, Economic Complexity and Economic Growth"이 이에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이근 교수의 2013년 영문저서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슈페터상 수상작)에서 제시한 5개의 혁신 변수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국가혁신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가 경제복합성 변수보다 경제성장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승 교수,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



이상승 교수가 지난 12월 9일에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이상승 교수는 산업조직론, 경제수학 등 강의를 통해 산업조직에 대한 다양한 현실 사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수학을 학생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강의로 명성을 얻었다. 또한 경제학부 학술동아리 범경제학연구회(LKS) 창설에 역할을 수행하고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매년 이 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김병연 교수, NEAR 학술상 수상



김병연 교수(오른쪽)가 2019년 12월 10일에 NEAR(North East Asia Research)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병연 교수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북한 경제 전문가로 사회주의 체제·이행을 연구해왔고, 7년의 연구 끝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펴낸 그의 영문 저서 '북한 경제의 베일 벗기기(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는 해외에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주요 도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 상을 수여한 니어재단은 민간 싱크탱크로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 과제인 동북아시아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자본 연구기관이다.

김소영 교수,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부석학위원으로 선임



김소영 교수가 2019년 4월부터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의 부석학위원(Associate Fellow)으로 선임되었다. 이 센터는 1983년에 설립되어 경제정책 관련 주제(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국가예산, 세계 경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유럽 및 그 밖의 경제의 정책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김소영 교수는 동일한 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시아 관련 정책 네트워크(Research and Policy Network Rising Asia)의 운영위원회 위원(Steering Committee Member)으로도 선임되었다.

홍석철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겸보



홍석철 교수가 2020년 1월부터 향후 2년간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을 겸보한다. 홍석철 교수는 경제학부 학생부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오쿠이 료(Okui, Ryo) 교수, Nakahara Award 수상자로 선정



오쿠이 료 교수는 계량경제학 이론분야에서 최적 도구변수 선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Nakahara Award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일본경제학회(JEA)는 젊은 경제학자(만 45세 이하)들이 국제적인 논문 또는 책을 출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5년에 Nakahara Award를 제정하여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이 상은 신니혼 장학재단에 의해 운영되며, 일본과 해외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매년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교수 신간 안내

2020 한국경제 대전망



경제추격연구소, 이근, 류덕현 외 지음
21세기북스
2019년 11월 8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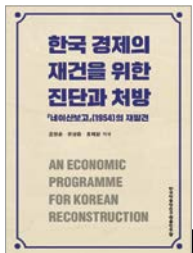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도전 정신의 회복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불어온 외풍들을 한국경제에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43인의 경제 석학이 모여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을 편찬했다. 본 전망서는 한국 내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거시금융경제학



윤택 지음
박영사
2019년 7월 26일 출간

본 책은 거시금융경제학을 설명하는 전문서적으로 화폐 및 금융의 거시경제적 측면을 거시금융현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는 거시금융모형을 소개한다. 앞에서 언급한 화폐 및 금융의 거시경제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화폐의 거시경제적 측면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의미한다. 금융의 거시경제적 측면은 주식의 가격지수 및 채권의 수익률곡선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진단과 처방
- 『네이산보고』(1954)의 재발견

조영준, 류상윤, 홍제환 역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년 11월 20일 출간

1950년대에 한국산업은행과 대한재무협회, 민의원상공위원회는 한국 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평가받는 『네이산보고』를 간행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옛 맞춤법과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어 열람하기가 어렵고, 현대 연구자가 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책은 『네이산보고』의 전체 내용을 현대어로 알기 쉽게 풀어쓰고, 영문판 원문인 EPKR과 대조하여 오류를 확인하고 가다듬어 연구 자료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본 책은 『통계의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1950년대 초의 한국 경제 연구를 위한 기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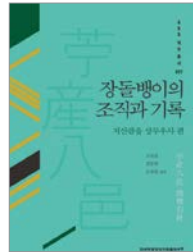
성균관과 반촌



조영준 외 4명 지음
서울역사박물관
2019년 12월 출간

본 책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기획연구5 『성균관과 반촌』에 관한 것이다. 성균관(成均館)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반(泮)'이란 글자는 나라의 학교를 뜻하므로 '반궁(泮宮)'은 성균관의 별칭이다. '반촌(泮村)'은 성균관 공노비들이 모여 사는 성균관 주변 마을을 의미한다.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 저산팔읍 상무우사 편



조영준, 김봉좌, 오창현 역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년 12월 5일 출간

본 책은 조선 후기 보부상 조직 가운데 '저산팔읍 상무우사'와 관련된 고문서를 전수 조사하고 원문을 탈초, 정서, 역주, 해설한 자료집이다. 저산팔읍(芦産八邑)은 충청남도 서남부의 모시 생산이 많았던 지역을 통칭하는 용어로, 서천, 비인, 남포, 홍산, 부여, 정산(혹은 은산), 임천, 한산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등짐장수인 부상과 보짐장수인 보상은 각각 별개의 조직을 이루어 존속했는데, 상무우사(商務右社)는 그중 보상의 조직을 가리킨다. 근대 이행기 대표적인 상인으로 알려져 있던 보부상 조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 상업 및 조선 후기 상업사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하였다.

공폐(貢弊) - 조선후기 공물 제도 운영의 병폐 -



조영준, 최주희 역해
아카넷
2019년 12월 18일 출간

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시리즈로 펴내는 『공폐(貢弊)』는 영조 29년인 1753년 작성되어 총 여섯 권으로 구성된 유일본을 최초로 완역하고 해설을 붙인 책이다. 영인본의 공간(公刊) 이후 꾸준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시점에서 『공폐』 번역본의 출간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자료(예컨대 『비변사공폐이정계하절목』)와의 직접적인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폐』를 작성한 이유, 공가의 개념과 폐해, 『공폐』에 등장하는 일문 등 역해자가 깊이 읽기라는 이름 아래 별도의 해설을 제공한다.

경복궁 중건 천일의 기록



조영준 외 15명 지음
서울역사편찬원
2019년 12월 26일 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경복궁영건일기』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축적해 오면서, 그 역사적 의미와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그 결과, 국내외 건축, 역사, 미술사, 국문학 전문가 등 다양한 집필진들이 15개의 주제로 고종대 경복궁 중건의 역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본 책에 수록된 15개의 일화는 독자들에게 경복궁 중건 현장의 미시적·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경복궁의 새로운 역사를 제공한다.

한 시절의 끝



최광철 (학부 13학번)

올 2월에 졸업을 한다. 대학은 군휴학을 포함해서 7년 다녔다. 누구는 졸업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하지만, 끝은 끝이다. 지금까지의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학창시절은 앞으로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한 시절의 끝을 맞이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 세월을 돌이켜 보며 자신이 어떻게 세월을 보내왔으며 그중 얻은 것과 잃은 것, 또는 기반을 좀 더 다져야 할 것

과 새로 뜯어고쳐야 할 것들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것일 테다. 이러한 단계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대로 된 끝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졸업 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미적지근한 상황의 연장일 뿐일 테니까.

초등학교 때에는 친구들과 축구하며 노는 데에 정신이 팔린 채 나이를 먹었고 중학교 때에는 판타지, 무협 소설과 스타크래프트에 빠져 살았으며 고등학교 때 비로소 공부를 시작했던 나는, 운이 매우 좋게도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서는 과분한 학교였다고 생각한다. 주변에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친구들이 말 그대로 넘쳐났다. 자연스레 나는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그저 그런 학생이 되어 있었다. 애써 그런 상황을 부정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나는 마음 편하게 곧바로 그 상황에 적응했다.

대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나쁜 세월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에 대한 기대 말이다. 반대로 학생 스스로가 그러한 길을 꿈꾸기도 한다. 자신에게 걸려 있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든, 실제로 누군가는 대학생활의 중간에, 또 누군가는 그 끝에 다다른 후에 높은 사회적 지위 또는 높은 연봉을 얻는다. 또 다른 누군가는 세월을 좀 더 사들여 학창시절을 늘리기도 한다. 쏟아지는 기대를 뿌리치고 자신만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로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모자라 흔하디흔한 동아리 경험, 그리고 인턴 경험도 전무하다.

물론 대학생활, 더 나아가 학창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은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기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성숙했냐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그저 주어진 것만 성실하게 할 줄 알았고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적응이라는 이름 아래 날카로운 예민함과 감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게으른 나는 애초부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남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없고, 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얹혀 있다고 해도

내 심신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선 그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이다. 명시적 성과에 대한 부모님의 억압도 없었기에 반작용으로서의 방향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불안한 세월이라고 하는 학창시절을 별 탈 없이 보낸 것일 테다. 2013년 20대 초반의 어린아이였던 나는, 2020년 서른을 눈앞에 둔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7년의 세월동안 얻은 것이 몇 가지 있다. 당장은 친구들, 몇 년 분량의 기록, 촛불과 광장의 경험, 약간의 체력, 두고두고 읽을 한두 권의 책, 패션취향, 그리고 졸업장 하나 정도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것들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학문은 세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곧 세상의 진리를 밝히는 일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혹은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더 나은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나은 설명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설명은 어디까지나 설명일 뿐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렌즈가 오목렌즈인지, 볼록렌즈인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렌즈인지, 심지어 불투명한 렌즈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설명을 이해해놓고 세상을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순전한 무사유”는 다름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닐까.

어쨌든 남들처럼 밥은 벌어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험 보는 생활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학창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적 부담 또한 있을 것이다. 약간은 두렵지만 나 스스로 견디어 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철이 좀 더 들어야 하고 게으른 천성도 극복해야 한다. 언제까지고 부모님께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나 스스로 부지런해져야 한다. 온전한 의미로 홀로 서기 위해선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박적일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어조로 말은 하긴 했지만, 분명히 나의 학창시절은 빛이 났을 것이다. 비록 그 빛이 약했더라도 나를 만들어 낸 이 기나긴 세월을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고, 마땅히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세월 안에서 나는 나만의 꿈도 꾸었고 잠시 동안의 낭만으로 누렸다. 친구들과 웃으며 밤을 지새운 날도 있었고, 경사스러운 일들을 함께 기뻐한 날도 있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나날들이 저마다의 빛을 냈을 것이다. 당장은 생각나지는 않지만 살다보면 이 기나긴 시절동안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른다. 마치 어떤 노래를 오랜만에 듣다보면 어느 순간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악기소리가 들리는 순간처럼.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빛나던 나날들을 그리워 할 것이다.

연구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서서



신진욱 (대학원 17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신진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교과과정을 마치고 수료상태로 박사 논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 저는 박사과정생으로서 연구자가 되어간다는 것에 대해 제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글로 적어보려 합니다. 이 글이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는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겠지만, 저 또한 대학원 입학 당시 열심히 공부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도 연구해나가겠다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심화된 경제이론들과 수학 개념들을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 무척이나 흥미롭고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정립된 경제이론들을 활용한다면 그동안 궁금해 왔던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알아나간다는 즐거움으로 저는 박사과정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경제 현상을 바라보며 또는 사람들의 경제 행위들을 관찰하며 “이것은 이런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이 특정 행동 패턴을 보인 이유는 이런 요인 때문은 아닐까?”와 같은 저만의 가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때론 이러한 가설들을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박사 교과과정을 마칠 때쯤 제 아이디어 노트는 제가 적어두었던 다양한 가설들로 빼곡히 차 있었고 그 노트를 바라보며 연구주제를 찾는 작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 수료 후 박사 논문 준비를 위해 지도교수님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구주제가 금방 잡히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왔던 가설들은 교수님께서 던진 몇 번의 질문에 쉽게 무너져 내렸고,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저의 가설들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아주 순진한 생각들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연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라는 생각에 대해서요.

저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를 주장하는 일이 연구자가 하는 일, 즉 연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연구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러한 일은 연구자 이외의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들도,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모임 자리에 모인 친구들끼리도 적절한 근거자료를 들어가며 “이 현상은 이렇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일반 사람들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연구자가 “진실에 가까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한다는 점이 일반 사람들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 현실과 지식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이 고민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과 차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가까운 증거”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수집된 증거가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도 많은 배움과 연습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계량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편의(Bias)의 가능성 그리고 여러 세미나에서 들어왔던 교수님들의 지적과 조언들은 “진실에 가까운 증거”들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구 미팅을 통해 수없이 들었던 연구의 목적성에 관한 질문은 하나의 연구 가설을 주장할 때 그 주장이 우리의 현실과 지식체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 훈련된 이러한 시각과 사고방식은 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전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제시된 주장은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차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 속에 “얼마나 확실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펼치고 있는가?” 그리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 현실과 지식체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라는 두 사실을 자문하며 연구를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어떤 흐름에서 저의 관심 분야가 발전해갔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 중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자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이라면 다들 유학, 졸업 그리고 졸업 후 진로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에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실 것이고, 가끔 잠이 오지 않아 뜯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식사는 거르지 말고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요. 힘냅시다!

You Only Live Once



김세현 (대학원 18학번)

글쓴이와 동행한 대학원생 친구. 이렇게 둘이 합쳐도 비행기를 탄 적이 5번을 넘지 않는다. 그것도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행 비행기를 탄 횟수까지 합쳐서 말이다. 그런 우리가 갑자기 19년 여름방학 말 무렵, 생애 처음으로 유럽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왜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냐고? 갑자기 떠나게 된 이유는 딱히 없다. 그저 더 늦기 전에 그리고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세상을 구경해보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우리는 들뜬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유럽으로 떠났다. 이 글에서는 유럽 여행 중 가장

긴 여정이었던 스페인 여행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의 도시 세비야

스페인 일정의 첫 시작은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지 세비야였다. 세비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꼽으라면 세비야 대성당과 알카사르가 있다. 세비야 대성당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으로 입구에서부터 그 웅장함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세비야 대성당 옆 히랄다 탑에 올라가면 세비야의 전경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이슬람과 스페인 양식이 결합된 알카사르는 섬세하게 조각된 장식들이 많아 어딜 봐도 눈호강을 할 수 있다.

TIP: 세비야의 낮시간대(12시~5시)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가혹하다. 되도록이면 아침 혹은 저녁 시간 때 돌아다니기를 권한다.

2. 헤밍웨이가 사랑한 절벽 도시 론다



세비야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론다라는 작은 도시를 만나게 된다. 드넓은 들판을 가로지르고, 구불구불한 가파른 경사 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론다에 도착하게 된다. 론다는 헤밍웨이가 사랑한 도시로 해발 780m 고지대 위에 위치한 절벽과 협곡

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치는 가히 절경이다. 그리고 꼭 누에보다리에서 사진을 찍길 바란다.

TIP: 누에보다리 근처에 먹을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하지만 여기서의 맛집은 누에보다리 근처가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Bar El Convento라는 가게이다! 현지인들만 가는 맛집으로 꼭 가보기를 추천한다(여기서 먹은 틴토테베라노(Tinto de verano)는 정말 잊을 수 없다!).

3. 휴양의 도시 말라가

우리가 말라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도시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말라가의 여름 축제 페리아(La Feria de Malaga)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리아 축제(매년 8월 중순)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진행되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축제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축제 기간 동안 말라가의 모든 거리에서는 음악, 연극, 플라멩고 등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한 병씩을 들고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다는 점이다.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여행객이라면 딱 이 장소이다.

TIP: 축제이긴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엔 사건사고가 있기 마련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길에 많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일행을 구해서 다니는 게 좋다.

4. 하얀 마을 프리힐리아나

프리힐리아나는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안달루시아의 산토리니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마을 전체가 하얀색 벽들과 파란색 문으로 지어진 집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얀 집들 사이사이로 나있는 골목길들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푸른 하늘을 지붕 삼아 골목의 아름다움 느낄 수 있다. 물론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프리힐리아나 마을의 전경을 볼 수 있다.



TIP: 프리힐리아나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의 장소(?)가 있다. 바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수영장(Psicina Municipal)이다! 물론 수영복만 있으면 관광객도 출입이 가능하다. 입장료가 매우 저렴한 뿐만 아니라 풀장 옆에 바로 레스토랑이 있어 먹고 놀기에 최적이다. 또한 수영장이 절벽 끝에 위치하여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5. 이슬람 문화의 도시 그라나다

여행 중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그라나다 일정을 짧게 잡았다는 것이다. 그라나다는 이슬람 문화와 가톨릭 문화가 공존해 있는 도시로, 여타 다른 스페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이국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 그라나다의 대표 관광지인 알함브라 궁전은 이슬람 문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며 그만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TIP: 그라나다에는 특이하게 무료 타파스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음료수 하나만 시켜도 타파스 요리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 그라나다에서 타파스 거리에 꼭 가보기를 추천한다.

SNUVALUE (스누밸류)

글: 안재석 (SNUVALUE 회장, 학부 13학번)

1. 동아리 소개

SNUVALUE(이하 스누밸류)는 교내 유일의 가치투자 동아리이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모임입니다. 흔히들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즐겨 표현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누밸류가 추구하는 가치투자는 도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치투자는 주가의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내재가치'에 집중하는 투자기법입니다. 가치투자의 원칙은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등 수많은 대가들에 의해 검증됐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아무나 지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성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집중한다면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스누밸류는 보수적이고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절대 잃지 않는 투자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 동아리 활동

스누밸류는 학교에서 배운 경제이론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 기업의 사업모델, 유가,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요소 등을 분석해 기업의 향후 수익성을 판단하고 다른 회원들과 공유합니다. 회원들은 분석한 기업에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하거나 동아리 자산으로 구성된 펀드를 운용하며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세션



학기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각자 자신이 조사한 기업의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기업

의 사업보고서, 각종 증권사 레포트, 기업 담당자 문의, 관련 산업 뉴스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자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한 학기 동안 최소 3개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획득한 기업분석 능력은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열심히 모은 돈을 증권사 펀드계좌에 맡기는 것보다 본인의 실력으로 투자해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2) 선배투자자 강연

스누밸류는 2008년 창립 이래 수많은 가치투자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동아리에서 갖고 닦은 실력으로 자산운용업, 증권업, 벤처 창업, 전업투자 등에 진출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와 큰 규모의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선배들이야말로 저희 스누밸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학기당 1~2회 정도 선배투자자 분들을 정규세션에 모시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많은 유명한 투자자 분들도 서울대학교 투자동아리 스누밸류에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해주려고 하십니다. 선배투자자 분들이 가감없이 알려주시는 올바른 가치투자 방법과 자신만의 경험담, 노하우들은 회원들이 실전 감각을 기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기업탐방

기업탐방이란, 주식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궁금했던 점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기업의 경우 문서를 통한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탐방을 통해 실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과 만나며 현업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키우고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년 가을학기에는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에 방문했습니다.

(4) 펀드운용

선배님들이 기증하신 동아리 자산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전적으로 활동 회원들의 교육 목적으로 쓰이며, 회칙상 특정

수익을 초과한 금액은 회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년 가을학기 주요 차익실현 투자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목	헬릭스 스미스	나이스 정보통신	에이디 테크놀로지
수익률	6.45%	3.45%	31.09%

(5) 그 외 활동

스누밸류는 세션 활동 후 비교적 자주 친목 도모를 위한 동아리 회식을 합니다. 물론 참석 여부는 자유입니다. 세션 시간 동안에는 발표한 기업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지만, 뒷풀이 때는 오순도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시간을 가집니다. 또 선배투자자 강연 때는 회식 자리에서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회원들끼리 축구를 하기도 하고, 독서모임, 주식 스터디 모임을 따로 갖기도 합니다. 또 지난 학기부터는 다른 투자자들과 소통하고자 부동산 투자 동아리 등 타 학회와의 교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스누밸류는 회원들의 올바른 투자실력 함양, 경제적 자유 획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회원모집

매 정규학기마다 전공과 무관하게 10명 내외의 신입회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올바른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큰 자산을 일구고 싶은 분들,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검증해보고 싶은 분들, 버크셔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나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같은 금융업계 거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열심히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you will work until you die.

잠잘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입니다 - 워렌 버핏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 (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 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실시된 지난 6년간(2013년9월~2019년 8월)의 BK21플러스사업 최종 종합 평가 결과에서 매우우수등급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다.

2019년도 하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사업단은 2019년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14회
- ▶BK21플러스/IER Public Seminar 2회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2회
- ▶BK21플러스 H-Trio 워크숍 8회
- ▶BK21플러스 공동주관 학술행사 2회
- ▶BK21플러스 특별강연 3회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2회
- ▶인구경제세미나 1회
- ▶실험사회과학 워크숍 1회
- ▶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지원 6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Frederic Moisan (University of Cambridge)
Efficiency and Inequality in the Network Economy

Manipushpak Mitra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Kolkata)
Sequencing Problems with Participation Constraints and Incentives

Stephen D. Williamson (Western University)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Welfare and Policy Implications

Hyuncheol Bryant Kim (Cornell University)
Are Part-Time Workers Less Productive than Full-Time Worker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Ethiopia

Gregory Cox (Columbia University)
A Simple Uniformly Valid Test for Inequalities

Chia-Hui Chen (Kyoto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trategic Pricing with Social Learning

Sehyoun Ahn (Norges Bank)
Monetary Policy with Ageing

Matthew Mitchell (University of Toronto)
Our Distrust is Very Expensive

Shiko Maruyama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nother Look at Returns to Birthweight

Juan Dubra (University of Montevideo)
Belief Elicitation when more than Money Matters

Margarita Portnykh (Carnegie Mellon University)
Political Beta

박정재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Global Financial Shocks and Emerging Markets' Sovereign Default Risk

Lin Zhang (Henan University)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across Chinese Provinces

김지혜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Shenzhen)
Do Single-sex Schools Make Girls less Interested in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BK21플러스/IER Public Lecture Series

Dmitry Shapir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Incentives of Low-Quality Sellers to Disclose Negative Information: Experimental Analysis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Varie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NIS) around the World and Economic Growth: Balanced, Imbalanced, Catching-up and Trapped NIS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Seminar

안지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Effect of US Monetary Policy Shock on the \$/£ Exchange Rate

박해량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Common Ownership and Bank Stability: Evidence from the U.S. Banking Industry

BK21플러스 H-Trio 워크숍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an Abortion Mitigate Transitory Shocks?: Demographic Consequences under Son Preference

이종관 (KDI)
The Impact of a Local Human Capital Shock: Evidence from WWII Veterans

이창근 (연세대학교)
The Different Shades of Digitization in Manufacturing: Automation Versus Smartification

유지수, 김규연, 김영광, 김기성 (석사과정)
Proseminars in Applied Microeconomics

Shiko Maruyama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nother Look at Returns to Birthweight

Hyunseob Kim (Cornell University)
Strong Employers and Weak Employees: How Does Employer Concentration Affect Wages?

김미성 (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세기 말 면주전 접방(接房)의 감소와 도중(都中)의 대응

Sun Kyoung Lee (Yale)
European Immigrants and the United States' Rise to the Technological Frontier

BK21플러스 공동주관 학술행사

CEBSS 공동 주관 세미나
Korea Workshop: Experimental Economics and Development Economics

경제연구소 공동 주관 세미나
Macroeconomic Policies in Chang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BK21플러스 특별강연

Christopher Paik (NYU Abu Dhabi)
Family Matters in a Meritocracy: Networks, Civil Service Exams, and Officialdom in the Joseon Dynasty

이선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ABM(Agent-Based Model) 이용한 시뮬레이션 배우기: 금융시장 안정성 분석에의 응용

안세현 박사(Norges Bank)
Introduction to Heterogenous Agent New Keynesian Model(HANK)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Workplace Flexibility and Gender Wage Gap in South Korea

김국동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How Do Individuals Repay Their Debt? The Balance-Matching Heuristic

인구경제세미나

안수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Health Inequalities of Self Employed Workers: Focusing on Health Care Utilization

김도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이용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실험사회과학 워크숍

CEBSS Reading Group-Bayesian Persuasion: Theory and Experiments

Dongkyu Chang (City U. of Hong Kong)
"Bayesian Persuasion," Kamencia and Gentzkow (AER, 2011)

Jinwook Shin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Rules and Commitment in Communication: An Experimental Analysis," Frechette, Lizzeri, and Perego (NBER, 2019)

Myung-Hwan Lee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Bayesian Persuasion, and Reciprocity: Theory and Experiment," Au and Li (SSRN, 2018)

(10면에서 계속됩니다.)

장 학 금

장학금 수여

2019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899명 중 287명, 대학원생 116명 중 85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항상 장학금을 통해 29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370명, 대학원생 3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3회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제73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2019년 8월 29일(목)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8명, 석사 27명, 학사 36명(최우등 9명, 우등 16명)을 배출하였다.

2020학년도 전기 경제학부 대학원 모집

경제학부는 2020학년도 전기 신입 대학원생을 선발했다. 대학원 모집에서는 석박통합과정 지원자 39명에 대하여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 뒤,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2명이 합격했다. 박사과정의 경우 지원자 10명에 대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10명 전원이 합격했다.

2019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9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경제원론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계량경제학'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9학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 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이근	•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Economy (Introduction to Economics)
이지홍	• Microeconomic Theory
이철인	• Studies in Labor Economics
주병기	• Advanced Microeconomics
Dmitry Shapiro	• Advanced Economic Theory: Economics of Information • Topics in Microeconomics: Economics of Strategy
Oyvind Thomassen	• Microeconomic Theory •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Ryo Okui	• Econometrics
Yves Gueron	• The Digital Economy • Advanced Economic Theory: Multi-Armed Bandit Models

학부 행사

'經友의 밤' 행사 개최



학생자치 동아리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주최로 2019년 11월 18일에 '經友의 밤' 행사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학부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경제학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매년 2학기(11월 중)에 개최된다.

동아리 수상

-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 최우수논문상 (2019.2.15, SFERS 소속 이경호, 최지훈 학생)
- 제33회 매일경제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2019.3.7, SFERS 소속 강현지, 양건호, 이경호 학생)
- 제9회 DB금융제안 공모전 장려상 (2019.5.21, SFERS 소속 김윤수, 윤영규 학생)
- 제18회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금상 (2019.8.14, SFERS 소속 박수연, 유정규, 이동훈, 이창주 학생)
- 제17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장려상 (2019.8.30, SFERS 소속 양건호, 윤영규 학생)
- 파이낸셜뉴스 제17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대상 (2019.11.20, SFERS 소속 김성호, 김지민 학생)
- 제17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 우수상 (2019.11.28, SFERS 소속 윤영규 외 1인)

(09면에서 이어집니다.)

BK21플러스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안지혜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29th EBES Conference-Lisbon" 참가 및 논문 "The effect of U.S. Monetary Policy Shock on \$/£ Exchange Rate: Time-Varying Structural VAR Approach" 발표

박지혜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참가 및 논문 "The Effect of National Pension on the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발표

김혜진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참가 및 논문 "The Wage and Employment Effect of Immigration: Evidence from Korea" 발표

이경호 (석사과정생), 김지환 (석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참가 및 논문 "The Joint Impact of Minimum Wage and Statutory Leisure Pay on Work Hours of Workers in South Korea" 발표

박해랑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The 3rd Sydney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Conference 2019" 참가 및 논문 "Common Ownership and Bank Risk-Taking: Evidence from the U. S. Banking Industry" 발표

강지혜 (박사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The 35th Annual Meeting Academic Sessions and Business Meeting" 참가 및 논문 "Government Spending News and Surprise Shocks" 발표

● 경제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2019. 8. ~ 2020. 1.

1억원 이상

김석수 회장 (동서식품㈜)
이내건·이홍자 (경제 55)

5천만원 이상

박승구 (경제 87)

1천만원 이상

김완진 (경제 72)
변양호 (무역 73)
신승식품㈜ (조갑주)
재홍콩서울대학교총동문회
KEB하나은행

1백만원 이상

안국신 (경제 65)
이해익 (경제 64)
홍승일 (경제 81)

1백만원 미만

전재안 (경제 05)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 모금 안내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00억 원을 기부해 주신 성기학 회장님을 비롯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목표 금액인 400억 원 달성을 위해 2020년에도 모금 활동을 지속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금액은 아래 계획과 같이 우석경제관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연구 기금, 학생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헌/내/후 모금 사용 계획

우석경제관과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285억 원
한국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	35억 원
연구 기금	30억 원
학생 지원	30억 원
제휴 및 융합 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경제학부는 가장 엄격한 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 집행할 것이고,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으로 남겨 오래도록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부자 예우

기부 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기념품 및 간행물 제공, 기부자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www.snu.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헌/내/후 기부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에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시오.
 - 팩스 발송: 02-875-8860
 - 사진을 찍어 이메일 발송: kang97@snu.ac.kr
 - 우편 발송: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6동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사무국(206-1호)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 경제학부 강내영 행정실장
전화: 02-880-6361 이메일: kang97@snu.ac.kr

제2회 서울대 경영대학-경제학부 공동 체육대회 개최



2019년 9월 27일에 상과대학 총동창회가

주관한 '제2회 경영대학-경제학부 공동 체육대회'가 학생, 교수, 졸업생 동문 등이 참가한 가운데 관악학생생활관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지금의 경영학과와 경제학과가 1975년 2월 이전에는 하나의 단과대학인 상과대학에 있었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서로 연대감을 갖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오전 중에는 이스포츠(E-Sports) 대회가

있었으며 이후 관악사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줄다리기와 축구, 스피드 계주 및 아이템 계주, 그리고 농구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중 학생들은 각 과와 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상기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만족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경영대와 경제학부 사이의 더 많은 교류를 기대했다.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9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경제연구소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세계경제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제39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1,000명 이상의 동문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락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① 모집인원 : 40명 내외
② 입학자격 1) 대기업의 임원 2) 중소기업의 대표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간부
5)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③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④ 모집시기 : [봄학기] 1~2월 [가을학기] 7~8월
⑤ 이수요건 : 강의 출석률 70% 이상
⑥ 모집안내 - 전화 : (02)880-5432 - 팩스 : (02)888-4454
- 이메일 : asp@snu.ac.kr - 홈페이지 : http://ier.snu.ac.kr
- 주소 :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라과전(16동 523호)

ASP 387기 회원명단



〈ASP 38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joongsan@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